성경의 번역문제

- 번역학적 입장에서 본 성경개역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박 용 삼*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번역의 역사에서 본 성경번역
2. Hieronymus와 Luther의 성경번역 원리
3. Nida의 언어학에 기초를 둔 성경번역 원리와 실제
4. 몇 가지 성경의 번역본의 비교
5. 언어의 변천과 성경개역의 필요성
III. 결 론

I. 머리말

기독교는 흔히 '책의 종교'로서 표시되어지며, 기독교신학은 '말씀의 신학'으로서 특징 지워진다. [2] 이러한 표현과 함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한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 기독교에서 성경은 필수적인 책이다. 이 성경으로부터 수많은 신학이론들이 나오고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관련된 저서들과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지 않으셨다. 또 예수님 자신도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고 어떤 천사에 의해서 기록되지도 않았다.

---

* 人文大 獨語獨文學科 敎授

1) Samuel Brüer, *Die deutschen Bibelübersetzungen des 20. Jahrhunderts im sprachwissenschaftlichen Vergleich. Studien zum Metapherngebrauch in den Verdeutschungen des Neuen Testaments*, Bern/Frankfurt/M./New York 1983. S.8

성경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사회와 문화적 환경이 다른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나 진리의 내용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그들 자신들의 시대와 지식과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문체와 표현을 달리하여 기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하고 저자들과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 제한되어 표현된 진리의 내용을 더 많이 풍부하게 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원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다만 수 많은 필사본들만이 존재한다. 더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들 사본에 의해서 편집된 원어성경에서 번역된 번역본이다. 또한 발견된 모든 사본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차이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로마서의 수백 편의 사본들 가운데 두 사본만이 1:7의 로마라는 수신자의 지명이 나타난다. 당시 로마의 문화나 로마서에 나타나는 문체와 인명을 보면 곧 이 서신의 수신인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된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수신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때, 몇몇 필사자들이 로마라는 지명을 써넣으므로 필요 없는 논쟁을 그치게 한 것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의 깊은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은 원문성경에 토대를 두고 숙고해야하며, 더 나아가서 상이한 사본들을 대조하여 비교연구할 필요를 가지게 된다. 특별히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본문말씀의 원문참조를 하고 문제되는 단어들이나 번역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후에 해석해야한다. 필자는 마태복음 강해설교에서 어느 목사의 26:14의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반장면을 강해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이라는 내용이다. 그가 문제삼고 해석한 대목은 "은 삼십을 달아주었다" 였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당시 은돈은 많은 사람들의 사용에 의하여 마모되어 있어서 개수를 세지 않고 저울로 달아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문의 의미는 그가 말한 것 같이 은 삼십을 저울로 달아 유다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보아진다. 유다가 자기 선생님을 배반할 것을 제안했을 때, 대제사장들은 기뻐하면서 은돈

삼십을 세어 책상 위에 놓고 그것으로 값을 홍정하고 댓가로 주었다고 보아진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막 14:10-11과 눅22:3-6에서와 같이 은 30십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나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루터의 번역본을 비롯해서 많은 독일어 번역본에서도 거의 '달아주었다' 는 표현은 쓰지않고 있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가룟 유다가 은돈 30을 받았다는 사실이지 달아주었는지 혹은 세어주었는지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달아주었다' 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에 의한 마모로 은 돈은 달아서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닐가 생각한다. 이러한 해석은 번역본만을 이해하고 원문의 의미와 문맥을 상실한 불필요하고 중요치 않은 국부적인 상황을 과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더욱 중요한 사태를 축소시킨 결과를 가져온 예라고 보아진다.

또 원문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독일어 번역본 성경에 이마에 뿔이 나있는 어떤 늙은 남자의 색채 그림이 출애굽기 어떤 장의 첫 번째 글자를 장식하고 있었다. 그 그림의 주인공은 모세였다. 이마에 뿔이 나있는 연유를 알아보니 옛날 라틴어 성경에서 출34:29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광채' 와 '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단어를 '뿔' 로 오역하여 그가 시나이산에서 내려올 때 이마에 뿔이 났다고 했다. 그후에 이 부분이 개역되었지만 여전히 모세의 이마에 뿔이 나있는 그림이 오늘 날도 삽화 그림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성경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러나 사본이나 역본에는 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번역본에는 번역자들이 원문의 오해나 목표어로 옮길 때 오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개역을 요구하게 된다. 루터 당시의 Weib 라는 낱말의 의미는 "일반적인 여자"를 표현했지만 오늘날 Weib의 의미는 Frau 라는 낱말로 대치되어지고 Weib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서 요한복음 2:4절의 Weib가 Frau로 바뀌어져야만 했다.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Frau 가 원래의 의미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과 스위스의 신교와 카토릭교회가 공동으로 번역한 『Die Gute Nachricht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1990)에서 이 단어를 빼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카톨릭 교회와의 공동번역에서 '여자' 라는 호칭을 빼고 '어머니여' 라고 한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도 성모 마리아의 귀한 이름을 호칭하는 것이였기 때문일 것

이며, 신교 번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낱말이 주는 상당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낱말을 빼고 있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되어진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變遷한다"는 사실이 성경의 개역을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말 개역 성경에 아직도 '가라사대'를 쓰고 있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낱말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9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개역 성경이 새로 번역되어 '표준 새번역 성경 전서'가 출판되었으나 번역 내용을 놓고 교단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반포가 중단된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번역과정에서 신학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M. Luther의 독일어 성경의 개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말 성경의 개역성경과 표준 새 번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비교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번역에 있어서 언어학적인 번역학의 접목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그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번역사를 간단히 개관하고 성경 번역사에서 언급할 만한 두 인물 Hieronymus와 Luther의 성경 번역원리를 소개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서 Luther의 개역본을 최근의 몇가지 다른 새 번역본과 비교해보면서 몇가지 번역상의 문제를 찾아보려고 한다.

II. 본론

1. 번역사에서 본 성경번역

인간의 교류가 있어온 후로 통역 내지 번역은 존재해 왔다. 그러나 번역이 학문으로서 체계를 갖추고 시작된 것은 언어학이 독립된 학문 분과로서 독립되어 학문으로서 자리잡은 것보다 나중 일이었다. 그 때문에 번역행위는 오히려 학문적인 이론 보다는 실제에 치중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마치 언어학을 배우지 않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듯이 번역학이 없이도 지금까지 번역 행위는 이루어진 것

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제 번역학을 알 때 번역 행위에서 저질러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으므로 번역활동에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약 창세기(11:1-9)의 바벨탑 사건 이후 지구상의 인간들은 언어의 혼동으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의 장애를 받게 되었다. G. Steiner는 『바벨탑이후, 언어와 번역의 제양상』에서 실제로 바벨탑건축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인류의 다언어성과 그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종족이나 부족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통역자가 필요했고 더 나아가서 문학, 과학, 무역, 외교 등에서 문서적인 번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번역사를 통해보면 통역 행위와 번역행위가 인류의 모든 시대에 걸쳐있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상이한 언어를 쓰는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유지했어야 했고 또 유지해야만 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서나 구두상의 교류와 문자상의 교류에서 중개하고 전달하는 통역자와 번역자를 필요로 했다. 번역의 역사, 즉 인류가 거쳐온 상이한 시대에 있어서와 상이한 문화 공간 및 언어 공간에 있어서의 번역과 통역 활동의 역사는, 아직도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으며 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다.[2)]

번역사에서 특기할 사항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성경번역에 있어서 문헌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번역사는 곧 성경 번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적인 과정은, 더욱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외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내적인 발전은,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 추론될 수 있다는 것과 독일에서도 독일어의 최근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이 성경 번역과 함께, 즉 Martin Luther의 성경 번역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다.[3)]

위에서 언급한 곳에서 Störig는 계속해서 번역사에서 유럽에서의 3가지 흐름에 대해서 말하고 그 흐름에서 번역에 대한 토론이 이어져 왔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첫 번째 흐름으로, 성경번역을 들고 있다. 기원전 3세기와 2세기에서 히브리어로된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처음 번역한 것에서 부터 오늘까지 성경은 번역자

2) G. Steiner, After Babel, London 1975.
3) Hans Joachim Störig, Einleitung, S.12. in: Das Problem des Übersetzens, Hrsg. von Hans Joachim Störig, Darmstadt 1973.을 비교하라.

들의 끊임없는 대상 이였다. 라틴어 septuaginta는 70을 의미한다. 전설에 따르면 약 70명의 학자들이 서로 독립해서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서로 일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Septuaginta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학자들이 약자로 로마숫자 LXX로 표시했다. 디아스포라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어에 낯설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리스어로의 번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원전시대 동쪽 지중해 지역은 그리스어가 일반적인 교육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더나아가서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했으며 그들의 선교적인 의도를 위해서 그리스어의 텍스트를 필요로 했다. 또한 구약성서가 인용되어진 신약 성경에서는 70인 역의 어법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70인 역에 친숙해 있었다. 70인 역의 언어는 아렉산드리아의 통용어였다. 그런데 이미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일반적인 그리스어의 통용어로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언어를 Koine라고 부른다. 두 번째 흐름은 문학 및 철학 그리고 과학을 새로 번역하려는 노력이었고 마지막으로 유럽 국가 문학의 고전문학을 다른 유럽어들로 번역하는 것이 세 번째 흐름으로 들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을 미루어 보아도 번역사에서 성경번역이 중요한 흐름의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그리스어 본 역본은 어거스틴이 389년에 밀라노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져왔던 Itala라는 이름을 가진 번역본인데, 그 당시 아프리카에 퍼져있던 번역본들과 다른 것이 였다. 이 Itala 번역본은 170년 동안 서방에서 지배적이었던 그리스어 성경텍스트에 대한 가장 신뢰할만한 증거물이라는 데에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증거물은 유명한 그리스어 사본들보다 200년이나 더 오랜 것이였다.

라틴어로 번역된 가장 유명한 번역본은 벌켓(Vulgata)이다. 이것은 전체 로마카토릭교회의 성경이 되어 졌고 라틴의 서양기독교의 일반적인 성경이라는 데서 그 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번역은 교황의 결정이나 어떤 높은 직위의 발령 없이 관철되었다. 382년에 당시의 교황 Damasus가 장로 Hieronymus에게 라틴어 성경을 새로 개정하도록 임무를 주었다. 그는 우선 4복음서에서 필요한 텍스트를 복원해야만했다. 그가 70인역에 따라서 두 번째로 시편을 개정해서 출판했을 때, 그것은 그의 욥기서 개정과 유사하게 훌륭한 업적이었다.

Wulfilas의 고트어 성경번역은 독일어 성경번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독

일어사적으로 고트어는 고대 독일어의 전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라틴어로된 성경을 게르만어화 하는 데 성과를 가지게 된다. Wulfilas는 전체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다. 사무엘과 열왕기는 빠져 있는데 아마도 그는 이와 같은 전쟁에 관한 책들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그는 이러한 전쟁의 뜻을 그의 고트인들에게 강하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였을 것이라고 Melzer는 말했다.[4)]

2. Hieronymus와 Luther의 성경번역의 원리

1) Hieronimus

성경번역가로 알려진 히에로니무스(영어. 제롬)는 그의 소년시절과 대학친구인 파마치우스에게 보낸 '번역 활동에서 최상의 방법 Über die beste Art des Übersetzens' 이라는 편지 속에서 그가 성경을 번역할 때 따랐던 원리들을 설명하고 논박에 대항하여 그 원리들을 변호하고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성경번역에 있어서 확고한 원리를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원리들은 다른 분야의 번역에 있어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서는 Störig가 편집한 『Das Problem des Übersetzens』에 실려있는 그의 서한을 중심으로 성경번역의 원리들을 정리해보고 현대 성경번역의 길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그는 하나의 낱말이 다른 낱말을 통해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뜻이 다

4) Frismo Melzer, Unsere Sprache im Lichte der Christus-Offenbarung, Tübingen ②1952. S.323

5) Hieronymus, Brief an Pammachius, in:Hrsg. von Hans Joachim Störig, Das Problem des Übersetzens, (Wege der Forschung Bd.8) Darmstadt 1973. S.1-13. 참조.

6) E. Coseriu, "*Falsche und richtige Fragstellungen in der Übersetzungstheorie*", in:Übersetzungswissenschaft (hrsg. von Wolfram Wilss), (wege der Forschung: Bd. 535), Darmstadt 1981. S. 30. 번역에서 낱말의 의미(Bedeutung)가 아니라, 그 낱말이 사용된 텍스 트에서의 뜻(Sinn)이 번역된다는 극단적인 예는 독어 아침 인사 Guten Morgen은 그 낱말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불어로 bonjour이다. 불어에는 독어 Morgen에 상응하는 낱말 matin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onjour를 사용해야한다. 불란서 인들은 아침에도 bon matin을 사용하지 않고 bonjour를 쓰기 때문이다.

른 뜻을 통해서 번역된다고 믿고 있지만 낱말의 순서에 신비성을 두고 있는 성경은 예외로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번역 이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한 언어로된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 낱말의 의미(Bedeutung)가 아니라 뜻(Sinn)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며[6], 다른 하나는 현대 번역 이론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출발 어의 낱말의 순서가 목표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히로니무스의 이러한 입장은 400년전Cicero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히에로니무스는 플라톤의 'Protagoras'와 크세노포노스의 'Oeconomicus' 내지 그들이 서로 행한 Aeschines 와 Demosthenes의 매우 훌륭한 연설을 번역한 Tullius(Cicero)를 예로 들면서 Cicero가 다른 언어의 특성을 모국어의 특성을 통해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생략하고, 덧붙이고, 변화시켰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하나의 낱말이 다른 낱말을 통하여 번역된다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체에 있어서 표현법과 모든 낱말들의 의미를 유지해야된다고 하면서 "나는 이것을 독자에게 세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저울질해 보이는 것이어야만 한다."[7]고 그 이유를 말한다. 텍스트에서 낱말의 수를 세는 것은 낱말 대 낱말의 축어적인 번역을 의미하며, 무게를 단다는 것은 낱말의 수에 상관없이 내용의 等價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유세비우스의 연대기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람들이 각 행마다 외래어 텍스트를 따를 때 무엇인가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번역에 있어서 다른 언어 안에 있는 잘된 표현이 번역에서 동일한 상응을 유지한다는 것은 도달하기가 어렵다. 거기에는 어떤 유일한 낱말의 특별한 의미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표시되어진다. 그러나 나의 언어 속에는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떠한 낱말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나는 뜻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동안에 긴 우회를 해야하며 거의 단거리 노정을 가지지 못한다. 여기에 제한된 낱말 위치에서의 미로, 상황을 사용할 때 부족한 유사성, 비유들의 혼한 상이성, 끝으로 어떤 언어에서 고유하고 소위 토착적인 기질이 나타난다. 내가 문자대로 번역하면, 그것은 의의 없게 되고, 그러나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낱말의 순서와 문체에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면, 마치 내가 번역가로서 나의 의무를 해친

7) Hieronymus, ebenda, S.2

것처럼 보여질 것이다."[8]

히에로니무스는 긴 상론에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하고 있다: "마치 번역을 통해서 어떤 언어의 매력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는 호머를 축어적으로 라틴어로 번역할 수 있을 거다. 좀더 말하면, 그는 호머를 자기 자신의 언어에서 산문으로 번역할 것이다. 그는 우수꽝스러운 낱말의 순서가 생겨지고 언어구사력이 있는 시인이 말더듬이가 되는 것을 보게될 것이다."[9]

히에로니무스는 그가 젊었을 때부터 항상 낱말이 아니라, 의미 내용을 번역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고 Antonius의 전기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다른 언어로의 축어적인 번역은 의미 내용을 덮어버리며, 무성한 잡초 때문에 모종이 질식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말이 상황들과 언어 비유를 맹종하여 따르는 동안, 그 말은, 짧은 표현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을 긴 우회에서도 거의 해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고 Antonius의 전기를 당신(그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Innocentius)의 간청에 따라서 번역한 것이므로, 낱말에서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을 때도 뜻에서는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음절과 철자를 따라갈 때, 너는 뜻을 찾아라." [10]

이렇게 번역의 대가로서 히에로니무스는 뜻에 따라 번역할 것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욥기서 해설과 시편에 대한 대단히 많은 논문들을, 죽은 철자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 것같은 융통성 없는 번역으로 수고하지도 않고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Hilarius를 고백자로 명명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승리자의 권리를 가지고 홉사 감금된 의미 형태를 자기 자신의 언어

8) "Es ist schwierig, nicht irgend etwas einzubüschen, wenn man einen fremden Text Zeile für Zeile folgt, und es ist schwer zu erreichen, da ein gelungener Ausdruck in einer anderen Sprache dieselbe Angemessenheit in derÜbersetzung beibehält. Das ist etwas durch die besondere Bedeutung eines einzigen Wortes bezeichnet: in meiner Sprache habe ich aber keines, womit ich esausdrücken könnte, und, während ich den Sinn zu treffen suche, muß ich einen langen Umweg machen und lege kaum ein kurzes wegstückzurück."(Hieronymus, ebenda, S.2.)

9) Hieronymus, ebenda, S.3

10) Hieronymus, ebenda, S.3

로 번역을 했다.

히에로니무스는 번역에 있어서 이러한 원리가 70인 성경 번역자와 복음서 저자들 내지 사도들이 성경에서 동일하게 행해졌음을 당연하게 보고 있다. 그는 성경 번역에서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다.[11]

마가복음 5:41에서 예수님이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다음과 같이 부언되어진다: 즉,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나니 일어나라 하심이라"이다. 히브리어에서는 다만 '소녀야, 일어나라' 만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 저자가 '내가 네게 말하노니' 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했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가 거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서 히에로니무스는 그것을 더 인상적으로 만들고 부름과 명령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음서 저자가 '내가 네게 말하노니' 를 덧붙인 것이라고 했다. 번역에서 부가와 삭제는 언제나 동반사항으로 간주된다. 다만 어떤 경우라고 할찌라도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복음서 저자의 번역에 '달리다굼' 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부가된 요소가 복음의 진리내용을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더 정확한 이해를 하게한다. 이것이 바로 번역자의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마태복음 27:9이하에서 배반자 유다에 의해 은돈 30이 되돌려졌고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을 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아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 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12]

히에로니무스는 이 구절을 예레미아서가 아니라, 스가랴서(11:12)에 있는데, 완전히 다른 낱말들과 다른 어순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것을 벌겟본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기 때문이다:

11) Hieronimus, Brief an Pammachius, in: Das Problem desübersetzens, hrsg. von Hans Joachim St rig. (Wege des Forschung Bd. VIII), Darmstadt 1973, S.1-13 참조.

12) 스가랴서의 이 구절에서 한국어 번역본과 영어 번역본의 "토기장이"가 독일어 번역본과 벌겟본에서는 "용광로"로 되어 있고 70인역에는 "철조공"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는 구약 인용에서 "토기장이"로 번역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 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을 용광로에 던져 넣고 내가 그들에게 시인받은 것 같이 시인하는 지를 시험하라. 그래서 나는 은 삼십을 가져다가 주의 집의 용광로에 넣었다."

이 70인 번역본이 복음서 저자의 증거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명백하다. 그러나 또한 히브리어에서 이 낱말들은, 뜻이 동일한 반면에 역으로 되어져 있으며 거의 다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너희들의 눈에 좋거든 나의 고가를 이리로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겨두라. 그리고 그들이 나의 고가로 은 삼십을 달아주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팔렸으니 그 거액을 철조공에게 던져라. 그래서 나는 은 삼십을 가져다가 주님의 집의 철조공에게 던졌다."

히에로니무스는 이 구절에서 복음서 저자가 히브리어에서도 70인 번역자들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가 고친 것이라고 했다. 더나아가서 히에로니무스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용한 구약 성경의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 스가랴 대신에 예레미아를 쓴 것이다. 이에 대해서 히에로니무스는 낱말과 철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른 가르침의 뜻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 이후에 그 오류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번역자가 자료의 착오에서 생긴 오역 내지 오기인데, 여기서도 그 구절의 진리내용은 불변이기 때문에 목표언어의 독자에게 그 구절이 주고자하는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복음서 저자인 요한이 히브리어의 원문에 따라 인용한(19:34) 동일한 스가랴의 다른 증거(12:10)를 언급하고 있다: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것을 70인 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읽게 된다: *καὶ ἐπιβλέψονται πρός με, ἀνθ' ὧν ἐνωρχήσαντο* 이것을 라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비웃었던 또는 모욕했던 것 때문에 나를 보리라" 히에로니무스는 여기서 복음서 저자, 70인역 그리고 그의 번역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상이성이 성령의 일치로 말미암아 조화를 이룬다고 했다. 이 세가지 번역의 차이는 번역과정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역시 텍스트내용의

불변이 이러한 번역의 상이성을 극복하게 된다.

마태복음(26:31)에서 주께서 어떻게 사도들에게 도망을 가르치셨으며 바로 이것을 어떻게 스가랴(13:7)의 인증을 통해서 뒷받침하는지를 읽게 된다: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70인 역과 히브리어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있다. 그것은 즉, 복음서 저자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로 되어 있으며, 성부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간청하신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어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히에로니무스는 이 구절에서 복음서 기자가 과실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가 감히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전이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된 복음서 저자(마 2:15)는 또한 요셉이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거기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쓰여 있다:

"나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이 히에로니무스가 사용한 사본에는 없고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서(11:1)에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것 대신에 동일한 구절이 70인 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이스라엘은 작은 소년이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애굽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렀다."

복음서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호세아서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70인역의 아들들은 야곱의 12아들을 의미한다. 여기서도 70인역에서 오역이 있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는 이제 상당히 그리스도의 聖事에 속하는 그 구절이 거부되어 다르게 번역되던가 혹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씌우리라."라고 한 야고보의 교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까?라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외에도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성경번역에서 비판적인 언급과 그의 번역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수많은 실제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위에 든 예만으로 그의 성경 번역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보았다.

이와 같은 번역에 대한 생각이 기원 1세기에 낱말과 뜻의 이분법을 주장한 CICERO이래로 지금까지 일관하는 번역 이론의 중심이 되고있다. 위의 인용이 말해주듯이, 히에로니무스는 번역 활동에서 난관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성경번역에서 그는 원본의 낱말들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시도했으나 언제나 출발언어 텍스트의 의의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히에로니무스는 성경의 라틴어 번역을 할 때, 그 당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70인 역을 참고하면서 번역상의 많은 문제들을 알게되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라고 임무를 주었던 교황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위에서 몇가지 예로들은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70인 역에서 오역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가 예견한대로 그의 벌겟본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졌으며, 심지어는 그가 교회를 망쳤다는 심한말을 들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성경 번역에 미친 지대한 영향은 지금도 과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2) Martin Luther

히에로니무스와 비교해서 Martin Luther는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 번역에 있어서 대가였다. 마르틴 루터는 언제나 "사물을 파악을 한다음 낱말 자체를 따르라. Erfasse die Sache, dann folgen die Worte von selbst" 고 했다. 또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번역자는 진술의 대상에 대한 어떤 내면적인 접근을 가지며, 텍스트전체에 대한 리듬과 멜로디를 위한 예민한 언어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루터는 신적인 전권속에서 성경번역을 했으며, 그것으로 모든 성경번역을 위한 모범이 되었다. Frismo Melzer는 그의 저서에서 루터의 위대한 성경 번역자로서 3 가지 조건을 기술하고 있다.[13]:

첫째로, 번역자는 기독교 신앙인이어야한다. 더 나아가서 성경신학자이어야 한

13) Frismo Melzer, *Unsre Sprache im Lichte der Christus-Offenbarung*, Tübingen ②1952, S.330 이하 참조.

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자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하며, 번역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없이 성경에 접근하는 자는, 성경에서 다만 '종교적인 문서', 즉 한편의 동방의 문서를 찾게 되고, 그 성경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을 유효하게 번역하지 못한다.

둘째로, 성경 번역자는 원본 텍스트를 이해해야만 한다. 원본 텍스트에서 수행되지 않는 성경번역은 있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없이 아무도 성경번역을 할 수 없다. 루터는 라틴어로된 벌겟번역본이 있었음에도 그는 언제나 원어에 주의를 기울였다. 성경의 언어와 독일어가 서로 상응하지않기 때문에, 루터 교회는 고대언어의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루터는 10년동안 수행한 그의 시편번역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히브리어는 너무나 풍부한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도 그 언어를 충분하게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존경하는 것, 기뻐하는 것, 속이는 것등을 이르는 수많은 낱말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신적인 거룩한 사물에 있어서 히브리어는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있다.

Es ist die hebräische Sprache so reiche, da keine Sprach sie mag genugsam erlangen [erreichen, gleichkommen]. Denn sie hat viel Wörter, die da singen, loben, preisen, ehren, freuen, betrüben usw. heißen, da wir kaum eines haben. Und sonderlich in göttlichen heiligen Sachen ist sie reich mit Wörtern..." [14]

셋째로, 번역자는 모국어, 즉 목표언어를 정복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모국어를 완전하게 구사하는 것은 아니다. 모국어의 구사문제는 특히 번역에서 나타난다. 루터도 이문제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모국어인 독일어에 힘썼다. 그는 성경번역을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정복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모든 독일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번역본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독일어의 방언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력했다고 하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였으며, 이

14) Ebenda, S.332. 참조.

성경번역에 사용되었던 자기 지방의 독일어 방언, 즉 중고지독어가 모든 독일 사람들이 이해하는 표준독일어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의 성경 번역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경 번역에 사용된 독일어가 표준 독일어가 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독일어사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히브리어의 풍성한 어휘 때문에 그는 독일어에 없는 수많은 어휘들을 조어하기도 하고 이미 존재하는 독일어의 낱말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가하는등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 번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다듬어진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은 주로 라틴어번역을 따랐던 이전의 독일어성경 번역들보다 대단히 이해하기 쉬웠으며 정확했다. 마르틴 루터는 「번역에 관한 서신 Sendbrief vom Dolmetschen」에서 그의 성경번역수행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다. 이 서신에서 다음 보기는 그의 성경번역에서 모든 독일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독일어를 구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So wenn Christus spricht: 'Ex abundantia cordis os loquitur' (Matth. 12:34). Wenn ich den Eseln soll folgen, die werden mir die Buchstaben vorlegen und so dolmetschen: Aus dem Überfluβ des Herzens redet der Mund. Sage mir: ist das deutsch geredet? Welcher Deutsche versteht solches? Was ist Überfluβ des Herzens für ein Ding? Das kann kein Deutscher sagen, es sei denn, er wollte sagen, es bedeutete, daβ einer ein allzu groβ Herz habe oder zu viel Herz habe; wie wohl das auch noch nicht recht ist. Denn 'Überfluβ des Herzens' ist kein Deutsch, so wenig als das Deutsch ist: Überfluβ des Hauses, Überfluβ des Kachelofens, Überfluβ der Bank, sondern so redet die Mutter im Haus und der gemeinsame Mann: Wes das Herz voll ist, des gehet der Mund über. Das heiβt gutes Deutsch geredet, des ich mich beflissen und leider nicht allwege erreicht noch getroffen habe."

첫번째 밑줄친 라틴어의 독일어 번역이 두번째 밑줄친 부분인데, 라틴어의 어순과 어휘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루터는 이것이 독일인이 이해하는 독일어가 아니라고 했다. 특히 'Überfluβ des Herzens' 는 독일어로 표현되었지만 독일어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집에 있는 어머니와 서민 남자가 말하는 'Wes des Herz voll ist, des gehet der Mund über.' 가 좋은 독일어로 표현된것이라고 했다. 독일어의 가장 최근의 NG 90에서 'Denn der Mund spricht nur aus, was das Herz erfüllt.'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루터의 좀 오래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독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와 비교해서, 똑같이 좋은 독일어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위의 보기에서 볼 수 있듯이 루터의 번역은 원본 텍스트, 즉 출발언어 텍스트의 언어구조에 얽매이기 보다는 목표언어에서 표현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루터의 번역에서 요약되는 번역이론은 서로 대칭적인 기본요구인 '축어적인 이질적인 번역' (ut interpres)과 '자유로운 독일어화하는 번역' (ut orator)이다.

3. Nida의 언어학에 기초를 둔 번역이론과 실제

번역작업이 언어학적인 방법을 토대로 해서 수행되고 더 나아가서 평가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출발언어와 목표언어의 언어적인 구조만을 비교해서 번역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불충분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은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문법형태가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과 작용이 번역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식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용면에 두는 번역활동이다. 텍스트의 내용의 동일성과 작용의 동일성의 유지를 위해서 Nida는 '역동적인 등가' 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출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에서 생겨지는 실제적인 문제로서 Nida는 두 언어의 등가문제를 언급하면서 성경번역을 통해서 체계적인 번역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기록된 메시지의 진리가 변화되지 않고 인간들에게 전해져야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두 언어 공동체 사이의 갖가지의 문화적인 이해의 장벽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의 의사 소통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E. A. Nida는 미국성서공회의 임무를 띠고 1964년에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에서 번역활동을 분석적으로 기술했다. 이것으로 그는 성경번역의 과학적인 토대를 만들어

내려고 시도했다.

Nida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후에 C.R. Taber와 함께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1969)(독어 Theorie und Praxis des Übersetzens, 1969)를 출판하여 성경 번역 출판 위원회의 번역 작업을 위한 토대로 삼았다. 번역할 때 출발 언어의 형식은 변해야 한다. 그러나 출발 언어의 내용은 변해서는 안된다. 번역활동에서 내용의 불변은, 의사 소통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언어 사이에서 내용의 등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것을 희생해도 된다는 사실이 옹호되고 있다. 그 때문에 Nida와 Taber는 "만일 형태가 메시지의 본질적인 구성 성분이 아니라면, 어떤 언어의 모든 진술은 또한 다른 언어의 진술로 만들 수 있다." [15] 라고 말했다. 이것은 두 언어사이의 내용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입장인 반면에, 히에로니무스이래로 성경번역에서 금과옥조로 지켜 내려온 성경에서 어순유지에 역행하는 입장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출발언어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성경의 언어는 모든 다른 자연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약 하에 있다" [16] 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언어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도 모든 다른 언어들과 같은 언어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해되어지고 분석되어져야 하며, 이 두 언어도 다른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복음서의 그리스어 텍스트에서 약 700개의 문법적 혹은 어휘적인 이중 의미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연관 속에서 풀려진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성경번역의 목표를 메시지를 재현하는 것으로 보고 "번역은 수신자 언어에서 출발 언어의 가장 좋고 자연스러운 상응을 찾아내는 것인데, 첫째로

15) Eugene. A. Nida/Charles. R. Taber, *Theorie und Praxis des Übersetzen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Bibelübersetzung,* Weltbund der Bibelgesellschaften 1969, S.4.

16) Eugene A. Nida/Charles R. Taber, Ebenda, S.6

17) "Übersetzen heißt, in der Empfängersprache das beste natürlichste (sic) Gegenstück zur Ausgangsbotschaft zu schaffen, erstens was den Sinn und zweitens was den Stil anbelangt." (Nida/Taber, ebenda, S.11)

는 뜻에 의해서, 두 번째로는 문체에 의해서 이다."라고 했다."[17]

번역학 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정의 속에 Nida의 소위 '역동적 등가 dynamische Äquivalenz'의 원리가 비쳐지고 있다. 이 역동적 등가는 Luther에서 독일어화의 원리에 상응하며, 이와는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는 '형식적 등가 formale Äquivalenz'는 Schleiermacher의 소외적인 번역 방법을 비교할 수 있다. [18] 여기서 등가라는 것은 목표언어에서 자연스러운 울림, 즉 번역본이 원본에서와 같은 울림으로 가능한 그 메시지의 수신자가 출발언어의 수신자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Nida와 Taber의 책에서 번역과정의 3가지 단계, 즉 분석 Analyse, 전이 Übertragung, 재구성 Neubau이 수많은 성경텍스트로부터 보기의 도움을 받아 전개되어진다. 다음에서 그것을 간추려 소개한다.

분석 단계에서 번역자는 낱말결합(Syntagmen), 예를 들면 성경에서 잘 알려진 어법 'der Wille Gottes' (하나님의 뜻)의 고유한 의의내용을 해명하기 위해서 기본문장으로의 해의 적인 소급변형을 사용한다. 먼저 der Wille Gottes 라는 어법에서 Gott와 Will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묻고, Gott가 두 번째 구성 성분으로 첫 번째 성분을 '원한다'.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B tut A', 즉, Gott will'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기본문장으로 소급해서 변형할 수 있다. 또 다른 어법 Gott des Friedens(평화의 하나님)에서 ein friedlicher Gott를 말하지 않고 Gott, der Frieden schafft나 verursacht를 말한다. 이 보기에서 A와 B의 관계는 정확히 der Wille Gottes에서 관계와 정반대이다. der Gott des Friedens에서는 A가 B를 야기한다고 해야하기 때문이다. [19]

전이단계에서는 전단계에서 얻어진 기본문장들이 목표언어에서 문체적으로 재작업되어져서, 조준된 수신자를 위해서 그 표현이 이해되어진다. 동시에 수많은 적응이 필요하게 되고, 관용적인 어법들이 없어져 버리고, 낱말들의 의미 성분들이 변화되어진다. 흔히 설명이 텍스트 속에 삽입되어져야만 한다. Nida는 전이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언급하고 있다. [20] 즉, 1) 어떤 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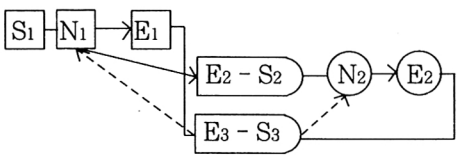
18) R. Stolze, Übersetzungstheorien. Eine Einführung, Tübingen 1994. Kap. 0.2를 보라.
19) E. A. Nida/C. R. Taber, Ebenda, S.34.
20) E. A. Nida/C. R. Taber, Ebenda, S.125.

을 치르고서라도 메시지의 내용은 최소의 손실이나 소모로 전이되어져야만 한다. 메시지의 직접적인 개념적 내용이 최고의 우위를 차지한다. 2)부차 의미, 감정적인 분위기, 메시지의 효과성을 가능한 훌륭하게 표현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첫 번째보다 더 어렵게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성취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3)만일 사람들이 어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메시지의 내용과 感情價를 전위할 때 형식의 무엇인가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식이 메시지의 다른 양상들 앞에서 상위를 차지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종합단계에서는 특히 문체론적인 상이성과 언어수준이 고찰되어진다. 문체의 다양성을 위한 구조토대는 예를 들어, 'Judas verriet Jesu' 와 같은 어떤 하나의 기본문장으로 환원하는 변형들을 형성한다. Nida/Taber는 이 예문을 포함한 9개의 변형 문장을 들고 있다. 1) Jesus wurde von Judas verraten. 2) Judas Verrat an Jesus. 3) Jesu Verratenweden durch Judas. 4) Der Verrat Jesu durch Judas.등.

문체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이러한 '기능적인 출발점' 은 특히 수사학적으로 문체요소들의 성능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Nida는 번역과정에서 출발언어뿐만 아니라 목표언어를 아는 사람이 출발언어의 메시지를 탈 부호화 dekodiert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신자 언어에서 타당한 등가로 부호화 enkodiert하는 것이 주로 문제시된다. 그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은 도해로 설명하고 있다. [21]



S_1. N_1. E_1은 발신자, 정보, 수신자를 의미하는데, 의사 소통 사건에서 일차적인 요소들이다. 사각형은 출발언어 메시지의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표현하며,

21) Eugene A. Nida, *Das Wesen des Übersetzens*, in: Übersetzungswissenschaft (hrsg. von Wolfram Wilss), Darmstadt 1981 (Wege der Forschung; Bd.535), S.145.

번역이 결과로 나타나지는 수신자 언어의 상이한 구조를 표현하는 원과는 대립된다. E_2 - S_2는 번역자를 표현한다. 그는 절반은 사각형, 절반은 원에 속하며 번역과정에서 2개국 어의 중개자이다. N_2는 목표 언어의 메시지이며, E_2는 번역이 확정되어진 수신자를 표시한다. E_2 - S_2는 번역비평자이다. E_1과 E_2사이에서 N_1과 N_2메시지를 비교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N_1의 충실한 번역으로서 N_2의 등가 등급을 진술하는 것이 번역비평의 과제로 삼고 있다. 번역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N_1에 대한 비평가의 친밀한 지식이다.

그는 N_2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적거나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의 N_1의 숙달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답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흔히 만족스러운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E_2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출발 언어 진술에 대한 접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수신자 언어(목표언어)와 출발언어에 대한 이들의 새로운 견해를 고찰하면서 여기서 생긴 실제적인 결과들을 놓고 우리말 성경번역을 위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올바른 번역, 다시 말해서 수신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을 위해서 번역자는 출발 언어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을 Nida/Taber는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이들은, 번역 활동에서 근본적인 난점은 출발언어와 목표언어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성경 언어들을 지나치게 가치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신학자들은 히브리어를 신비로운 언어로 생각하며, 그리스어는 인간이 생각해낸 '신비' 혹은 '가장 정교한 도구'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22] 이 성경의 언어들도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언어들이며, 각 언어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소유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은 언어는 모두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쓰여진 텍스트는 이해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도 자신이 기록한 성경이 이해되어지기를 원한다. 말할 필요 없이 성경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성경을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성경원어에 익숙해 있지 않다는데서 불가피하게 번역이 필요하게 된다.

22) E. A. Nida/C. R. Taber, *Theorie und Praxis des Übersetzens, Unter besonderer Ber ücksichtigung der Bibel übersetzung*, Weltbund der Bibelgesellschaften 1969, S.6}

두번째로, 성경번역자는, 그 성경원문이 저자에 의해서 생각되었던 것처럼 번역본에서 묘사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해야만 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용인해 왔기 때문에 『Today's English Version』을 읽기를 시작한 사람이 그 내용이 잘 이해되므로 오히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독자의 이해에만 치중한 이 번역본이 신학적인 문제들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세번째로, 번역자는, 성경 원문을 저자가 그것을 썼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이 원리는 모든 번역자들에게 자명한 사실이지만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신약성경의 원문은 그리스어이지만 더 정확한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많은 아람어의 표현에까지 가야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자는 할 수 없이 누가복음을 번역할 때 그가 사용한 그리스어의 텍스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텍스트의 번역자는 "누가는 그의 시대에 그가 사용한 그리스어를 가지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 누가는 산상보훈에서 'Armen'으로 직접 "가난한 자들"에 관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에, 마태는 그 표현을 "영적인 연관"에 두고 있다. 물론 예수님이 사용한 아람어를 복구하는 것과 누가나 마태가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재구조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번역자의 과제가 아니며, 저자의 뒤로 소급해서 그의 언어를 해석하고 번역하는데서 저자를 앞질러가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pistis' (믿음)이라는 그리스어 개념은 신약의 더 뒷부분과 특히 초기 교부신학의 작품들 속에서 'Glaubensinhalt' (믿음의 내용) 혹은 'Glaubensbekenntnis' (신앙고백)의 의미를 포함했으나 복음서, 예를 들어, 눅 18:8에서 이 의미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창조역사에서 우리들 자신의 '세계상'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창조의 낱말들을 '지리적인 개념'으로서 혹은 '궁창' (독일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Feste"로 혹은 "Firmament"로서 잘못 번역되어져 있다) 혹은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으로서 혹은 "전리층"으로서 표현해서는 안된다.

계속해서 여기서는 Nida/Taber의 수신자 언어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것은 성경번역의 맥락에서 언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 번역

과정에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모든 언어는 그들 자신의 본질을 소유한다. 다른 언어와는 달리 그 언어에 고유한 성격을 주는 특색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서 어떤 언어는 조어에 대한 능력과 상황 불변사들이 풍부하며, 또 다른 언어에서는 비유적인 용법의 발전이 숙달되어져 있는 언어들이 있다.

두번째로, 효과적인 의사 소통은 모든 언어에서 특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번역자는 수신자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신자 언어를 그 언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드려야 한다. 예를 들어, 남미에서 한 선교사는 수동태가 없는 언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동태를 소개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훌륭한 번역자는 어떤 언어에게도 형식인 구조를 떠맡기지 않을 것이고 메시지를 수신자 언어의 자연적인 구조형식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모든 형태의 변화를 시도할 준비를 해야한다.

세번째로, 언어의 모든 진술은 그 형식이 메시지의 본질적인 구성 성분이 아니라면, 다른 언어 속에서도 표현되어질 수 있다. 히브리어 문학의 리듬, 수많은 시의 이합체와 대단히 흔하게 나타나는 의도적인 두운법은 그 형식이 본질적인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각운을 맞춘 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면 그 시는 가치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 외에는 수신자 언어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등가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그 때문에 번역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 눈을 모르는 사람들이 '눈같이 흰' 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에서 한 구절을 이해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눈을 모를 때 눈에 대한 어떤 개념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 할 수 있지만, 비록 눈을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며 여기서부터 그 개념이 생겨날 것이다. 혹은 눈이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대단히 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눈' 이 메시지의 이해를 위해서 결정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 에 대한 낱말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그 번역은 타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본의 정확한 의미를 중재하지 못하는 것은 곡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한 곡해는 한 언어 사이에서도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사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상이한 언어 사이의 번역에서 완전한 등가는 찾기힘들다. 외

래어와 전문용어를 포함해서 600,000단어를 헤아리는 독일어를 가지고 히브리어의 hesed라는 단어의 등가는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Güte" 혹은 "Huld"로 그 단어를 표현한다고 해도 이 단어가 가지는 족장과 그의 하속인 사이의 충실과 친절의 완전한 사회적인 구조- 우리에게는 낯설고 대부분 거의 생각할 수 없게 나타나는 어떤 의존 관계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서문에서 그리스어 'logos'를 "Wort"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 예를 들어 요한 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리스어에서는 이 두 개념에 대해서 동일한 낱말 'pneuma'가 있다. 이 낱말은 독일어로 전이할 수 없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낱말유희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주해 속에서 출발어에서 동일한 낱말이 두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이 최상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로, 메시지의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막 1:4에서 그리스어의 표현은 명사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즉, 'Taufe des Buße'이다. 그러나 독일어의 축어적인 번역에 따라 생겨난 어법은 본래의 의미를 전혀 표현하지 못한다. 평범한 독자는 'Taufe'와 'Buße'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대단히 많은 언어들에서 사건들은 매우 자연적으로 동사의 도움으로 되지 명사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Taufe 도 Buße도 사건들이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어의 명사 구조는 'Buße tun' (=sich ändern, 회개하다)과 'sich taufen' (세례를 받다)로서 매우 빈번하게 동사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관용구의 명사적인 변형(혹은 적응)에 불과한 것이다.

4. 몇가지 성경번역본의 비교

Nida의 성경번역 원리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언어학적인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는 Nida/Taber의 번역활동의 본질을 개관해 보았다. 여기서는 이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독일어, 영어, 한국어 번역본 가운데서 문제시되는 한 구절을 선택하여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성경 번역의 길을 모색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새로이 언급된 견해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났는지 보기 위해서 루터(1912), 알브레히트, KJV, Zü80, NT68, GN67, GN90, NIV, JB68, ASV, RSV, NRSV, 개역 성경, 표준 새 번역, 공동 번역의 롬1:5의 표현의 비교를 통해서 보려고 한다.

로마서 1:5

루터:

durch welchen wir haben empfangen Gnade und Apostelamt,unter allen Heiden Gehorsam des Glaubens aufzurichten unter seinem Namen

알브레히트:

durch ihn, unsern Herrn Jesus Christus, haben wir die Gnadengabe des Apostelamts empfangen, um zu seines Namens Ehre unter allen Völkern solche zu sammeln, die dem Glauben gehorsam werden.

KJV:

By whom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for obedience to the faith among all nations, for his name

NT68 :

Gott gab mir durch ihn das Vorrecht, ein Apostel für Christus zu sein. Ich soll die Menschen aller Völker zum Glauben bringen und gehorsam machen.

GN67 :

In seiner Gnade hat Gott mich zum Apostel berufen. Zur Ehre seines Namens soll ich Menschen aus allen Völkern dafür gewinnen, daß sie die Gute Nachricht annehmmen und sich ihm unterstellen.

GN90 :

Durch Jesus Christus wurde mir die Gnade erwiesen,

Apostel zu sein. Zur Ehre seines Namens soll ich Menschen aus allen Völkern dafür gewinnen, daß sie die Gute Nachricht annehmen und sich Gott im Gehorsam unterstellen. Glaubensgehorsam unter allen Heiden zu wirken

NIV :

Through him and his name' s sake, we received grace and apostelship to call people from among all the Gentiles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TEV71 :

Through him God gave me the privilege of being an apostele, for the sake of Christ, in order to lead people of all nations to believe and obey.

ASV:

through whom w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unto obedience of faith among all the nations, for his name' s sake

RSV:

through whom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of faith for the sake of his name among all the nations,

NRSV:

through whom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of faith among all the Gentiles for the sake of his name,

개역 :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저자: 그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가 되는 은혜를 받았으

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도록 해야합니다.)

표준새 :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루터의 번역은 그가 일련의 그리스어 낱말, 어법 내지 상응하는 낱말 부류를 표현하면서 형식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리스어의 원문과 일치하고 있다. 즉, 명사들은 명사로서 동사들은 동사로서 전위되어져 있다. 그러나 이 번역은 그리스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는 충실하게 되어 있지만 독일어의 특성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이해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루터의 번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개역번역본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Nida는 Gnade와 Apostelamt의 병렬이 영어나 독어의 표현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문법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의 주어이지만 의미론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과정의 목적어라고 보기 때문에 번역자에게 그리스어 형식의 구조를 바꾸어서 재구성하기를 권하고 있다. 즉, '그(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구조를 따르고 있다.

루터의 번역에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 두 개의 병렬된 활동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은혜'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목적어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NT68, GN67, GN90, TEV71와 같은 번역을 높이 평가하게 되고 실제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 것은 사실이다. 언어학적인 번역이론에서도 원본이 목표어에서 표현될 때 그 언어의 구조를 따라야 독자가 이해한다는 것이 흔히 언급된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한국어 개역본에서도 루터와 같은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이해의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진다.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개역)

"durch welchen wir haben empfangen Gnade und Aposelamt,"

(루터)

'그'나 'welchen'은 앞 절과 연관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그로부터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고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의미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에 없는 '하나님' (Gott)을 주어로 하는 문장 구조, 즉

"Gott gab mir durch ihn das Vorrecht, ..." (NT68) "through him God gave me the privilege ..." (TEV71)를 취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좀 더 나중에 나온 현대인을 위한 독일어 번역 본에서는 이 구조를 피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여기서는 수동태 구조로 바꾸어 쓰고 있다.

"Durch Jesus Christus wurde mir die Gnade erwiesen,
Apostel zu sein." (GN90)

수동태 형식을 취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진 것으로 표현했지만 여전히 '은혜' 와 '사도직' 의 병렬은 피하고 있다. 알브레히트는 Gnadengabe' (선물)라는 복합 명사를 사용하므로 오히려 이해의 어려움을 야기했다고 보여진다. '믿음의 순종' (Gehorsam des Glaubens)도 혼동을 일으킨다고 했다. 독일어에서 행위의 두 가지 명사의 이러한 병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Taufe der Buβe(회개의 세례)도 마찬가지인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의 변형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한국어 개역본이 보다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NIV도 이 부분을 '믿음으로 오는 순종' 으로 표현하여 이러한 행위 명사의 병렬을 피하면서 독자가 이해를 쉽게 하려고 배려하고 있다. GN90은 '믿음' 을 '복음을 받아' 로 변형하여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려고 했다. 알브레히트도 이 부분을 '믿음에 순종하게 되는' 으로 표시하여 원문의 의미, 즉 의의(Sinn)를 표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믿음' 이 더 이상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NT68, GN67, GN90등은 알브레히트의 번역보다 광범위하게 구조를 바꾸므로 번역본 자체의 이해를 쉽게 하고 있지만 성경해석에 가까운 의역으로 신학적인 오류를 가져올 여지를 남기고 있음을 보게된다. 'zu seinem Namen' (그의 이름을 위하여)에서 분명히 그 이름이 '그리스도' 에 관계하는지 혹은 '하나님' 에 관계하는지 혼동을 일으키므로 'für Christus' (그리스도를 위하여)로 고유명사로 바꾸므로 그 문장의 주어 'Gott' 를 끌어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그의 이름' 이 '그리스도' 에 관계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또

NT68에서 'zum Glauben bringen und gehorsam machen' 에서 사도가 누구를 순종케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사도가 누구를 순종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 전체가 'ich soll die Menschen aller Völker zum Glauben bringen und gehorsam machen' 은 문제가 있다.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만인이 믿어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게 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백성의 사람들' 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사람들 "을 뜻한다. GN67도 같은 내용으로 번역했으나 GN90은 이 부분을 수정하여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NIV가 가장 적절하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그러므로 Nida가 주장하는 것 같이 'ich soll Menschen aus allen Völkern dahin führen, da sie glauben und gehorchen' 으로 어느 정도 신학적인 문제가 해소되지만 그리스어 esnesin을 '이방인' 으로 하지 않고 '백성' 으로 번역한 것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는 아직도 잔존한다고 보여진다. 이제까지 간략한 고찰을 통해서 본대로 성경이 개역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보기로 선택한 독일어 역본 가운데서 GN90과 영어역본 가운데서 NIV가 신학적인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현대인을 위한 언어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어 표준 새번역은 개역성경과 비교해서 나아진 것이 없이 개역 본의 낱말을 사용하면서 영어와 독일어의 현대인을 위한 번역에서 나타나는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또 문장도 구조적으로 삽입 문장을 넣어서 복합 문장의 구조를 만들어 문장을 길게 하고 있다.

좀 더 로마서 1: 5의 한구절에 대한 몇 가지 성경 번역을 비교하면서 각 번역본의 특이성을 살펴 본다면, 역시 성경 번역본의 비교연구는 방대한 것으로 본 연구 논문에서 전체 성경을 취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하여 여기서는 다만 일종의 시론으로 한 구절만 비교 검토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여러가지 자료들의 도움으로 상당한 비교결과가 얻어졌다고 생각한다. 우선 모든 번역본들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나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번역자들의 변명이나 옹호하는 이론들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오역이 없는 한 번역

본으로서 모두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상이성들이 성경번역에서는 신학적인 문제와 결부되어지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로마서 1:5을 개역본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라고 했고, 표준새번역은 '...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고...' 로 번역했다. 이 두 번역본에서 야기되는 신학적인 문제는 '이방인 가운데서 순종하여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든 이방 사람이 믿어 순종케 되는가' 이다.

이것을 놓고 결론적인 언급을 한다면, 개역은 선택교리를 주장하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번역이고, 새표준 번역은 만민구원에 입각한 알미니안 주의에 기초를 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번역자는 어떤 신학이론이나 교파에 의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원본 텍스트에서 출발하여 원본이 주는 진리 내용만을 옮기는 번역을 수행해야 한다. 그때문에 성경번역자는 순수한 성경신학자이어야 하며, 언어학에 정통한 지식을 가진 자라야 한다. 더 나아가서 성경저자들과 방불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라야 한다. 이 세상에 수 많은 번역본들이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다만 언어적인 대치 작업으로만 번역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5. 언어의 변천과 성경개역의 필요성

언어의 중요한 기능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며, 이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성경의 언어도 일반 언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숙명적인 변화에서 제외될 수 없다. 더욱이 기독교는 '책의 종교' 로서 특징지워질 만큼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과 함께 오랜 세월 성장해왔다. 지금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대로 성경이 쓰여진 언어의 변화 때문에 성경내용이 오해되거나 잘못 해석되므로 생겨지는 문제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83년에 시작해서 1992년에 9년 3개월의 작업끝에 번역 작업이 끝나 출판되었던 표준 새 번역 성경의 머리말에서 번역자들은 "개역 성경의 수정이나 교정이

아닌, 전적으로 새로운 번역을 하되 개역 성경의 보수적인 정신과 한국 교회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번역자들에게 번역 지침이 주어졌다. 이 지침들은 결국은 위에서 언급된 기본 정신에 의존해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번역자들은 언제나 그 지침을 염두에 두고 번역작업에 임해야 했고, 그로인해서 결국 그들이 목표했던 "지금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의 수정이나 교정이 아닌 전적으로 새로운 번역을 하되"가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득권적인 사고가 작용하는 한, 올바른 번역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지 않았거나, 한국 교회의 전통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번역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번역자는 원본 텍스트 중심적인 번역을 할 때만이 다른 견해를 가진 모든 부류에 만족한 번역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역의 중점은 언제나 원본과 번역본 사이의 내용의 오류와 언어변천으로 의한 언어적인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언어변천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이 문제와 함께 성경 개역의 당위성을 찾아 보려고 시도할 것이다.

우리는 15세기에 쓰여진 훈민정음 서문이나 용비어천가등의 내용을 그 시대의 낱말의 의미나 여러 가지 문법구조를 연구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500년이 경과하는 동안 한국어가 변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세독일어로 쓰여진 텍스트를 현대 독일어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언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변화를 좀 더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관찰한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23]

첫째로, 음운론적인 변화인데, 이것은 발음의 변화이다. 어떤 음소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르게 발음되어지는 현상이다. 독일어에서는 이 현상이 특히 단모음화 (예. 중세독어 guot 〉 gut), 순음화(원순음) (예. 중세독어 helle 〉 Hölle), 탈순음화(비원순음)(중세독어 küssen 〉 kissen), 말음경화(예. 중세독어 der tac, des tages), 동화 (예. tump 〉 dumm), 부동화(예. samenen 〉 sammeln)에서 나타난다. 왜 소리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

23) Astrid Stedije, *Deutsche Sprache. Gestern und heute, Einführung in Sprachgeschichte und Sprachkunde*, München 1980. S.15ff. 참조.

다. 둘째로, 형태론적, 통사론적 변화인데, 특히 독일어에서 이 변화는 종합적인 언어구조에서 분석적인 언어구조로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미 체계가 단순화되고 어형변화가 바뀌는 형태소의 변화와 라틴어의 영향을 받아 복합시칭, 조동사의 사용에 의해서 문장구조가 바뀌는 통사론적인 변화이다. 셋째로, 어휘적인 변천인데, 수 많은 옛 낱말들이 사용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른 낱말들로 대치되거나 과거에 쓰였던 그 낱말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이미 쓰이고 있던 방언이 다른 방언에 의해서 몰아내 지거나 섬세하거나 교양있는 낱말들로 바뀌게 되는데, 특히 루터의 중세 독어에서 나온 낱말들이나 혹은 17세기의 알라모데 시대의 불어의 낱말들이 많은 독일어들을 구축했다. 많은 경우 종교적, 문화적 혹은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개념들이 언어밖으로 사라졌고, 또는 기사시대의 몰락과 함께 기사용어의 대부분이 사라졌다. 넷째로, 낱말들의 의미의 변천이다. 이 경우는 옛 낱말들이 아직도 존재하지만 의미가 달라진 경우들이다. 특히 의미의 변천에서 관찰 할 수 있는 현상은 1) 의미의 축소 (예. 고고지독어 bur는 'Haus 혹은 Kammer' (집 혹은 방)의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신고지독어 'Bauer' 는 "Vogelkäfig" (새장)으로 축소), 2) 의미의 추이 (예. 독일어 Bauer는 중세기에 사회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신분명칭으로 바뀌었다), 3) 의미의 확장 (예. 중세독어 vrouwe "adlige Frau 귀족부인"이였으나 신고지독어에 와서 "Frau 여자"로 의미가 확장되었고, 4) 의미의 악화 (예. 중세독어 'dierne' "Jungfrau"는 신고지독어에 와서 'Dirne' "창녀"로 의미가 악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언어의 변화는 어느 시대, 어느 언어를 불문하고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신고지독어만을 아는 사람이 중세기 루터의 성경번역본을 읽는다면, 상이한 문장구조를 발견하게 되고, 오늘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낱말들을 대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루터의 성경개역본은 지난 500년동안 무수한 개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정체이다. 독일에는 루터의 성경번역본 외에도 수많은 개별 번역본들과 공동번역들이 존재하지만 부분적으로 잘된 역본이 있기도 하지만 루터의 번역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한국어 번역본도 마찬가지로 가장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개역성경외에 여러개의 개별 번역과 공동번역이 있다.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한대로 많은 시간과 인원이 투입되어 새로

번역된 '표준 새번역'이 출판되었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유감이지만 이 번역작업을 바라보면서 교훈으로 삼고자하는 것은, 루터에게서와 같은 성경번역자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성경번역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다. 성경번역자들은 성경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영감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특정한 단체, 교단 혹은 개인의 이익이 관계하는 한 올바른 번역은 이루어지 않을 것이다. 히에로니무스가 교황의 명령을 받고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그가 사용한 70인 역이 히브리어 텍스들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회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황의 명령을 거절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라틴어 벌겟본을 완성하므로 그 성경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번역본이 교회를 망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 론

지금까지 성경 번역의 고전적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히에로니무스와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현대 언어학적인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Nida의 성경번역 이론을 중심으로 몇 가지 성경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성경번역의 중요한 전제들을 끌어낼 수 있었다. 기원전 시기의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Septuaginta는 매우 훌륭한 번역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약의 복음서 저자들이 이 70인역을 인용했으며, 사도 바울도 이 역본에 친숙해 있었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가 지적한대로 히브리 원본과 비교할 때 많은 오역들이 있음을 보게된다. 마찬가지로 라틴어 성경번역본에서 가장 잘 되어 있어 카톨릭교회의 성경이 되었던 히에로니무스의 벌겟본도 역시 번역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번역의 대가인 마르틴 루터의 성경 번역도 그당시 다른 독일어 번역본들과 비교해서 매우 훌륭한 번역본이였으며, 지금도 다른 독일어 성경번역본의 추종을 불허하는 훌륭한 번역본이였지만 수많은 여러 번의 개역을 통해서 그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루터의 독일어 성경개역본과 같이 부단한 성경개역이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경번역자의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언급한다. 이것은

루터의 성경 번역가로서 탁월한 자질을 묘사했던 Melzer의 기술, Nida/Taber의 올바른 번역을 위한 제안과 저자의 견해를 종합해서 번역자가 가져야할 자질로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 본 논문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로, 성경번역자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정복한 자이어야 한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원본 텍스트없이 아무도 성경을 번역하지 못한다.

둘째로, 번역자는 번역목표어, 즉 번역본에서 언어를 잘 구사해야 한다. 아무리 원본 텍스트가 잘 이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번역본에서 원저자의 의도가 표현되지 못한다면, 그 번역본은 실패한 것이다.

셋째로, 성경 번역자는 기독교 신앙인이어야 하며, 성경 신학자이어야 한다. 모든 성경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던 것과 방불하게 모든 성경번역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독일어의 수 많은 역본들이 있지만 루터의 번역본을 능가할 수 있는 번역본은 아직은 없는 것을 보아 루터의 성경번역에 성령의 도움이 있었다고 확언할 수 있다.

넷째로, 성경번역자는 일정한 신학이론이나 교파에 의존하여 번역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후천적인 선입견은 올바른 성경번역에 편견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신교와 카토릭의 독일어 공동번역에서 가나 혼인 잔치(요 2:4)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말한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빼거나 혹은 '어머니여' 로 고치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어떤 특정한 교파를 위해서 성경을 잘못 번역한 예이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아전인수격의 번역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성경이 모든 신학이론이나 교파를 평가하는 척도와 규준이 되는 것이지, 결코 신학이론으로 성경을 제한하거나 규정하지 못한다.

언급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없이 성경은 번역될 수 없으며, 설사 그렇게 번역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사로운 번역이 되고 말 것이다. 언어학적인 번역이론에 기초를 두고 발전 시킨 Nida의 성경번역의 실제에서 배울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목표언어에서 독자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배려하다가 원본의 진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언어학적인 번역이론이 현대인을 위한 성경번역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언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다. 또 언어가 담겨져 있는 문화와 그 언어

를 구사하는 인간도 변화하고 있다. 성경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 성경 언어와 그 당시 문화와 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번역본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번역본도 그 시대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개역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Bibeln

Albrecht, L.: Das Neue Testament, Giessen und Basel [10]1972.

American Standard Version

Jerusalmer Bibel: Neues Testament, Freiburg im Breisgau [3]1972.

Gute Nachricht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Die Bibel in heutigem Deutsch, Stuttgart 1990.

King James Bible: The Holy Bible dedicated to 'The Most High and Mighty Prince James King of Great Britain', Oxford 1910.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International Bible Society, 1973. 1978. 1984

The Holy Bible, King James Version, 1957 (55th Reprinted)

Luther rev.: Die Bibel oder die ganze Heilige Schrift, Stuttgart 1973.

Zürcherbibel Zürich 1942.

성경전서(개역), 대한성서공회 발행, 1956.

성경전서(표준새번역), 대한성서공회 발행, 1993.

Nida, Eugene A., *Das Wesen des übersetzens*, in: Übersetyungs-wissenschaft (hrsg. von Wolfram Wilss), Darmstadt 1981 (Wege der Forschung; Bd.535)

Brügger, Samuel, *Die deutschen Bibel bersetzungen des 20. Jahrhunderts im sprachwissenschaftlichen Vergleich. Studien zum Metapherngebrauch in den Verdeutschungen des Neuen Testaments*, Bern / Frankfurt M./New York 1983.

Coseriu, E., "*Falsche und richtige Fragstellungen in der Übersetzungstheorie* ", in : Übersetzungswissenschaft (hrsg. von Wolfram Wilss), (wege der Forschung: Bd. 535), Darmstadt 1981.

Gross, Harro, Einführung in die germanistische Linguistik, München

1988.

Hieronymus, Brief an Pammachius, in: Hrsg. von Hans Joachim Störig, Das Problem des Übersetzens, (Wege der Forschung Bd.8) Darmstadt 1973.

Melzer, Frismo, *Unsere Sprache im Lichte der Christus-Offenbarung*, Tübingen ²1952.

Nida, Eugene.A./Taber, Charles. R., *Theorie und Praxis des Übersetzen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Bibelübersetzung*, Weltbund der Bibelgesellschaften 1969.

Stedije, Astrid, *Deutsche Sprache. Gestern und heute, Einführung in Sprachgeschichte und Sprachkunde*, München 1980.

Steiner, G. *After Babel*, London 1975.

Stolze, Radegundis, *Übersetzungstheorien, Eine Einführung*, Tübingen 1994.

Störig, Hans Joachim, Einleitung, S.12. in: Das Problem des Übersetzens, Hrsg. von Hans Joachim Störig, Darmstadt 1973.

Zusammenfassung

Das Problem der Bibelübersetzung -Vom Standpunkt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

Park, Yong-Sam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darum, einige Probleme der Bibelübersetzung vom Standpunkt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 aus zu betrachten und durch den Vergleich der Bibelübersetzungen die von der Untersuchung herausgearbeiteten Probleme zu lösen. Die Geschichte der Bibelübersetzung, in der sich manche Übersetzer und Übersetzungen fanden, ist sehr lang und leitete die allgemeine Übersetzung. In dieser Untersuchung werden zwei große Persönlichkeiten der klassischen Bibelübersetzung herausgestellt: Hieronymus und Martin Luther. Im Auftrag des Papstes übersetzte Hieronymus die Septuaginta ins Lateinische. Die Übersetzung nannte man die Vulgata, die seit dem 4. Jahrhundert die Bibel der kathorischen Kirche als Kanon Übernahm. Martin Luther Übersetzte auch die ganze Bibel ins Deutsche. Seine Bibelübersetzung war epochemachend und beeinflußte seine Reformation und die deutsche Sprache.

Zunächst wollen wir die Theorie und Praxis in der Bibelübersetzung der beiden Gelehrten darstellen und einige Probleme in der Praxis zu behandeln versuchen. Zur vergleichenden Untersuchung der beiden Übersetzungen stützen wir uns auf einen modernen Theoretiker der Bibelübersetzung. Es ist Eugene Nida, der sich mit der Bibelübersetzung als Sprachwissenschaftler beschäftigt und im Auftrag von der Amerikanischen Bibelgesellschaft die Bibelübersetzung leitet.

Hieronymus ist der Meinung, daß sich bei der Übersetzung griechischer Texte - abgesehen von den Heiligen Schriften, wo auch die Wortfolge ein Mysterium ist - nicht ein Wort durch das andere, sondern einen Sinn durch den anderen ausdrückt. Bei der Übersetzung mit Ausnahme der Bibel behauptet er, da man nach dem Sinn im Textübersetzen muß. Das heißt, man darf nicht dem Leser die Wörter vorzählen, sondern gleichsam vorwägen. Hieronymus meint also, daß die wörtliche Übersetzung in eine andre Sprache den Sinngehalt verdeckt. Bei der Bibelübersetzung fordert er, dem biblischen Text Zeile für Zeile zu folgen.

Anders als Hieronymus versucht Martin Luther, in der Bibelübersetzung die passenden deutschen Ausdrücke zu finden. Deswegen wählt er ein Deutsch, das die Mutter im Hause, die Kinder auf den Gassen und der gemeine Mann auf dem Markt reden. Die Übersetzer müssen dem Volk "auf das Maul" sehen, hören wie die gemeinen Leuten reden und danach übersetzen. M. Luther vertret ausführlich seine Ansicht über die Bibelübersetzung im 「Sendbrief vom Dolmetchen」. Er hat sich in den einander diametral gegenüberstehenden Grundforderungen nach 'wörtlicher, verfremdender Übersetzung' einerseits(ut interpres) und nach 'freier, eindeutschender Übersetzung' andererseits (ut orator) verdichtet.

Beim Übersetzen werden nicht Grammatikformen, sondern Texte, einen gewissen Inhalt und eine Wirkung transportieren, übersetzt. Für solches übersetzen schlägt E. Nida die 'dynamische Äquivalenz' vor, wo mit einer veränderten sprachlichen Form das gleiche ausgesagt werden soll. Die Wahrheit der geschriebenen Botschaft sollte in vielen Sprachen unverändert den Menschen nahegebracht werden, doch hier stieß man auf vielerlei kulturelle Verständnisbarrieren. Um eine wissenschaftliche Grundlage für Bibelübersetzungen zu schaffen, hat Nida im Auftrag der amerikanischen Bibelgesellschaft 1964 in seinem Buch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versucht, das Übersetzen

analytisch zu beschreiben. Bei Nida zielt die Bibelübersetzung vornehmlich darauf ab, die 'Botschaft' wiederzugeben. Dies verlangt freilich nach einer ganzen Reihe von Anpassungen in Grammatik und Wortschatz. Eräußert sich zum Übersetzen folgendermaßen: "Übersetzen heißt, in der Empfängersprache das beste natürlichste(sic) Gegenstück zur Ausgangsbotschaft zu schaffen, erstens was den Sinn und zweitens was den Stil anbelangt".
Eine von dieser Untersuchung resultierte Konsequenz ist, daß alle Bibelübersetzungen ständig revidiert werden müssen. Es ist aber notwendig, daß jeder Bibelübersetzer folgende Voraussetzungen besitzen: 1) Der Bibelübersetzer muß die alten Sprachen, die in dem 'heiligen Original' benutzt wurden, beherrschen. 2) Der Bibelübersetzer muß auch in der Zielsprache vollkommen bewandert sein. 3) Der Bibel bersetzer mu notwendigerweise ein Christ und ein Bibelausleger sein. 4) Der Bibel bersetzer darf nicht die Bibel nach seiner irgendeiner theologischer Theorie und der Konfession übersetzten.

Sprache verändert sich im Laufe der Zeit. Sprache der Bibel kann auch die Veränderung nicht vermeiden. Deshalb müssen kontinuierlich alle Bibelübersetzungen unter der kulturellen und übersetzungswissenschaftlichen Aspekte revidiert werden.